

<p>원 훈 건강하고 바르며 창의적인 어린이</p>	<div data-bbox="435 159 643 293"> </div> <p>배곧초록유치원 http://new.bggreen.kg.kr ☎ 교무실 364-6100</p>	<p>제 2020- 32호 가정통신 (특수) 담당자: 임 소 원</p>
---	--	---

2020학년도 제40회 '장애인의 날' 안내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봄기운이 온 대지를 초록으로 물들이는 계절입니다.

산과 들, 공원에서 형형색색 그 자태를 자랑하는 꽃들과 푸른 나무들을 보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4월 20일 제 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옆의 빈 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리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같이 놀까?”**였습니다. 우리 유치원에는 ‘통합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유아도 있고,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탐 크루즈 등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는 유아도 있습니다.

통합반 친구들을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친구가 된다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하고 따뜻한 인성의 유아들로 자라나게 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유치원생활은 좀 더 마음 따뜻하고 값진 유치원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우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대하는 말투나 행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조금 느리다고 해서 놀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학부모님께서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근대는 소리가 아팠습니다.
“□□□□?”
열집 아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내게도 똑. 같. 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이 바뀐 것을.
-시각장애인 CEO 성리반의 글 중에서

1.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놀리지 않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2. 장애인이란 말 대신 그 친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 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3.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4. 지나친 도움은 친구의 자립심을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봐 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5.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바른 행동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배곧초록유치원장 귀하